



정교회주보

제2597호

2026년 10월 4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가이사리아 고대 항구 유적. 고난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로의 순명을 떠올리게 한다.(사도행전 21,8-14)



루가 제2주일
성 이에로테오스 아테네 주교
성 돔니나 순교자
(제1조 • 조과 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81
 - 주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고린토 후 9,6~11 · (봉)272
 - 복음경 : 루가 6,31~36 12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고린토 후 9,6)

[39회] 죽음도 막지 못하는 순명

ㄷ로와 가이사리아에서 제자들과 예언자들은 바울로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고난을 겪게 되리라고 알려 주었다. 신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만류했지만, 바울로는 말했다. “주 예수를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묶일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사도행전 21,13) 성령께서는 고난을 감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

바울로의 결심은 무모한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명자의 순명이었다. 그가 고난을 선택한 것은 죽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봉헌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공동체도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이었다. 참된 순명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다.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들이 남기신 성해(聖骸)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



시리아의 에프렐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회개하는 자들의 교회이고, 멸망하는 자들의 교회이다.” 하느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교회의 지체들이, 비록 은총이 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은총 안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신화(神化, Theosis, Deification)의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다”(2베드로 1,4) 신화의 길은, 인류의 조상이 타락하여 잃어버린 “하느님의 형상과 모습”을 처음에 창조된 그대로 회복하고 영원히 하느님과 친교하면서 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이 생명의 삶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에 대해서 교회의 교부들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을, 정교회는 매일 예배와 성사 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사 안에서 우리는 겸손한 삶, 욕심을 버리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거룩한 길을 걸어간 수많은 성인들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 정교회는 24인의 수호성인들의 성해(Holy Relics)를 통해서 그분들이 나아가신 신화의 길이 사실이고 현실임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느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듯이, 성인들도 “하느님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24인 성인들이 남기신 성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주교, 미라의 성 니콜라스(†330), 미탐나의 성 이그나티오스(†1566), 모스크바의 성 이노켄티(†1879), 펜타폴리스의 성 넥타리오스(†1920).

대순교자, 성 게오르기오스(†303), 성 판델레이몬(†305), 성 카테리나(†305).

사제순교자, 성 하랄람보스(†198).

순교자, 성 아브크센티오스(†296), 성 에브게니오스(†296), 성 마르다리오스(†296), 성 에브스트라티오스(†296), 성 오레스티스(†296).

수녀순교자, 아테네의 성 필로테이(†1589),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성 엘리사벳(†1918).

수도자, 이집트의 성 마카리오스(†390), 미탐나의 성 테오크티스티(†885), 무롬의 성 베드로(†1228), 아르타의 성 테오도라 황후(†1281), 라도네즈의 성 세르기(†1392), 그리스인 성 막심(†1556), 사로브의 성 세라핌(†1833), 케팔로니아의 성 파나기스 사제(†1888), 아토스산의 성 실루아노스(†1938).

단순한 기도들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두 단어로: 동정녀 마리아여!

세 단어로: 성 십자가여, 저를 도우소서!

네 단어로: 거룩한 삼위일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섯 단어로: 거룩한 천사들이여, 우리를 위해 중보하소서!

말없이: 겸손의 눈물을 흘리라!

아침에: 하느님께 영광을!

저녁에: 나의 하느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어느 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붙잡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처럼: 나의 하느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천사들처럼: 거룩한 하느님이시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이여, 거룩하고 영원하신 이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사랑으로: 나의 주님, 온 세상과 저를 도와주소서!

두려울 때: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 저를 빨리 도와주소서!

나를 괴롭게 한 이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종을 깨우쳐주소서!

뭐라 할 말을 찾을 수 없을 때: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서 있나이다. 저를 바라보소서!

우리의 영혼은 매 순간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기를 갈망합니다. 아침과 저녁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짧고 단순한 기도들로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아멘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는 18일(주일),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는 우리 주변에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준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 게라시모스 교우 그리스 유학

성직자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서울 성당의 정유하 게라시모스 교우가 장차 교회의 일꾼으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그리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하느님께서 게라시모스 교우의 유학 생활과 배움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어, 앞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잘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인천 성당 사목 방문

지난 주일(9월 27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크리스토퍼 온커 보제가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을 사목 방문하여 주일 조과와 성찬예배, 추석 맞이 추도식을 집전했습니다.

대주교께서는 설교 말씀을 전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를 위한 특별 기도를 드리고 신부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신자들과 함께 사랑의 오찬을 나누었으며, 성당의 여러 현안에 관해 신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국제 심포지엄 개최

우리 대교구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스 - 신학자, 철학자, 신비가」(Saint Gregory of Nyssa - The Theologian, the Philosopher, the Mystic)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1월 2일(월) 오후 2:30-6:00

(심포지엄 종료 후 식사 제공)

-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65동)

■ 서울 성당 경기대학교 학생들 방문

지난 9월 21일(월), 경기대학교 러시아어문과 김혜영 교수와 학생 10여 명이 성 니콜라스 대성당을 방문하여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로부터 정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성의 샘터

겸손이 절실한 이유

이사야 사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겸손이 절실하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시 형제들에게 '미안하네, 날 용서해주게'라고 말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겸손은 사탄의 모든 덫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